

조선시대 여자표의를 활용한 혼례복 디자인개발 연구

여 상 미 · 박 옥 련*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강사 ·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A Study of Adapting Women's Pyoeui of Chosun Era to Wedding Dress

Sang-Mee Yeo · Ok-Lyun Park*

Instructor, Dept. of Living Science, Lecture of Kyung Sung Univ.
Professor, Dept. of Living Science, Professor of Kyung Sung Univ.*
(2002. 6. 4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adapting Korean aesthetics to the design of Wedding dress. For this study, Chosun Women's Pyoeui(coat) were considered. Pyoeui had the courtesy and variety. They were Jugeui, Wonsam, Hwalos, Dangeui, and Jangeui.

Pyoeui were considered the formative features and the aesthetical values describing Shape, Color, Material, Pattern, and Ornament. And Pyoeui were considered the instances which were adapted their formative features to Wedding dress. The formative features appearing on Wedding dress were merely applied the outward shape.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understand the outward features and the aesthetical values about Women's Pyoeui for adapting Wedding dress. And then the continuous attempt is needed to adapt Korean aesthetics to the design of Wedding dress.

Key Words : Women's Pyoeui(여자표의), Wedding dress(혼례복), formative features(외형적 특징), beauty of Korean costume(한국 복식미)

I. 서 론

한국적 미를 지닌 복식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해오고 있으며 한국적 미를 통한 한국패션의 국제화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수 있다는 주제 하에 패션디자이너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시

도되고 있다. 그러나 혼례복은 현재 서양의 웨딩드레스가 대부분 착용되며, 현구고례(見舅姑禮)시에만 착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적 미를 표현한 혼례복의 개발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하여 전통복식중 조선시대 표의를 활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표의중에는 전통혼례시

착용되기도 하였고, 또 표의가 의례복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혼례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과 표의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여 그 외형적 특징이 많아 활용성이 풍부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적 미를 현대화하기 위해 표의의 외형적 특징과 복식미를 연구하며 그것을 모티브로 혼례복 디자인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남자표의의 연구¹⁾에 이어 여자표의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조선시대 표의중 여자표의의 외형적 특징과 내재된 복식미를 고찰하고 여자혼례복에 활용된 실례를 고찰하여 이를 분석하고 연구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선행논문과 문헌에서 밝혀진 유물을 통해 조선시대 여자표의의 외형적 특징과 복식미를 조사하였다. 사용된 유물은 적의 2점, 원삼 20점, 활옷 8점, 당의 22점, 장의 33점 등 총 85점으로 출처는 <표 12>에 밝혔다. 여자표의를 활용한 혼례복 분석은 마이웨딩 2000년 1월호~2001년 12월호, 한국의 미 1992년 2월호~1995년 11월호, 아름다운 우리옷 1989년 12월호~1998년 7/8월호, 우리옷 사랑 1999년 5,7,9,10월호, HANBOK 2000년 10월호, 2001년 1,2,4,5,6/7,8월호, 민속의상 1991년 여름호 등의 잡지에서 나타난 총 83점의 작품에 대해 실시하였다.

II. 조선시대 여자표의에 대한 고찰

1. 여자표의의 정의

조선시대 여자표의는 중국의 포제를 그대로 받아 국말까지 준용된 궁중예복포와 일반 서민층에 이어져 온 고유의 편복포제로 구별된다. 여자인 경우 저고리만 입어도 표의가 되나²⁾ 여기서는 저고리 위에 착용하는 의복으로 표의를 제한하였으며 또한 유물이 현존하는 표의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의례복식으로서의 적의·원삼·활옷·당의와 일반 표의로서 여자에게 입혀졌던 철통·액주음·장

의·직령·창의 등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철통은 남녀상하의 착용제한이 없으나 여성의 철통착용설이 문헌에 뚜렷이 밝혀진 바가 없어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며³⁾, 여자의 철통으로 추정되는 유물의 외형적 특징을 살펴본 결과 치수에만 차이가 있을 뿐 이미 조사된 남자표의의 철통⁴⁾과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액주음과 창의, 직령 역시 남자표의에서 나타난 특징⁵⁾과 차이가 없어 여기서는 제외하였다. 다만 장의는 외형적 특징이 남자표의와 차이가 나타나 고찰대상에 포함하였다.

2. 여자표의의 외형적 특징

복식의 아름다움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은 복식의 조형요소인 복식의 형태, 색채, 문양, 소재 등을 분석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가능⁶⁾하므로 이를 중심으로 외형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형태

형태로는 표의가 나타내는 전체 윤곽선과 구조적인 특징을 고찰하였으며, 고찰결과는 <표 1>과 같다. 소매형태의 경우 시대흐름에 따라 변화된 형

<표 1> 조선시대 여자표의에 나타난 형태

형태	표의	적의	원삼	활옷	당의	장의
깃	직령	●				
	합입		●			
모양	목판깃		●			●
	당코깃				●	
양	이중칼깃					
	칼깃					
소매	깃없이 동정만 있음			●		
	착수(窄袖)형				●	●
모양	통수(筒袖)형					●
	활수(滑袖)형					
소매	광수(廣袖)형	●				
	풍각지형					
모양	두리소매		●	●		
	거들지 달림				●	●
양	수구에 襖장식	●				
	한삼		●	●		
양	색동		●	●		

형태	표의	적의	원삼	활옷	당의	장의
옆트임			●	●	●	
뒤트임						
옆선이 곡선			●		●	
거드랑아래 당무						●
거드랑아래 잔주름						
안감의 襖			●			
깃에 襖장식	●					
도련에 襖장식	●					
선이 없음			●	●		
전단후장(前短後長)			●	●		
전후동장(前後同長)	●	●			●	●
고름			●	●	●	●
단추			●			
대대	●	●	●			
고리	●	●				
홀배			●			
보	●	●			●	
하피	●					
메슬	●					
실루엣 : A형, H형, X형						
구성법 : 겹, 홑, 누비, 솜누비						
봉제법 : 홑질, 박음질, 꿰그르기, 감침질, 상침						

태는 표에 각각 나타내었다. 한삼과 색동은 남자표의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었다. 그리고 원삼에 나타난 전단후장의 경우 앞뒷길이의 비는 1:1.1~1.3으로 나타났다.

2) 색채

색채 분류는 문헌과 선행논문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는 원색과의 차이는 다소 있으리라 생각된다. 여자표의에 나타난 색채는 紫·靑·黃·紅·綠 등의 원색과 이들 원색과의 조화된 색 등을 들 수 있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원삼인 경우 겹감이 녹색인 경우 안감이 대부분 홍색이었고, 황색과 자적원삼인 경우는 홍색, 홍색인 경우는 황색의 안감이었으며 襖은 남색 襖을 대었다. 활옷은 홍색바탕에 청색안을 대었다.

당의도 겹감이 녹색인 경우 안은 홍색이 많았고 그 외 분홍을 썼으며, 자색에는 홍색안을 대었고, 회록·백록은 분홍의 안을 대었다. 장의는 대부분 소색의 안을 대었다. 색동에서는 청·황·홍의 삼색으로 색채조화를 나타내었다.

<표 2> 조선시대 여자표의에 나타난 색채

색채	표의	적의	원삼	활옷	당의	장의
청색류(심청·아청)		●				●
녹색류(연록·두록·황록·운록·회록)			●		●	●
자색류(자주·농자주)			●		●	
흑색			●			●
황색류(황색·담황)			●			●
홍색류(대홍·다홍)			●	●		●
백색류(백색·소색)						●
갈색류(갈색·황갈색)						●
홍색류(대홍)			●		●	
청색류				●		
분홍					●	
백색류(백색·소색)						●
황색류			●			
녹색류			●			
홍·황			●			
홍·청			●			
황·청			●			
청·황			●			
황·홍·청				●		
황·청·홍					●	
청·황·홍						●
홍·황·청						●

3) 소재

소재는 크게 견·면·마로 분류되었으며, 견은 다시 緞·紗·紬·縐로 분류되었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의에 나타난 소재는 대부분 견직물이며 그 외 모시(5점)와 무명(5점) 등이 나타났다.

<표 3> 조선시대 여자표의에 나타난 소재

소재	표의	적의	원삼	활옷	당의	장의
단(공단·양단·문단)		●	●	●	●	●
사(문사)			●		●	
주					●	●
초			●			●
모시						●
무명						●
단(공단·양단·문단)			●		●	
사(문사)			●		●	
주					●	

4) 문양

여자표의에 나타난 문양은 素紋과 여러 가지 중

류들의 문양이 직금·금박·자수·지문 등의 다양한 기법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조선시대 여자표의에 나타난 문양

문양		표의				
		적의	원삼	활옷	당의	장의
동물문	적문	●				
	용문	●	●			
	봉황문	●	●	●	●	●
	학			●	●	
	나비		●	●		
	박쥐		●			
	원앙			●		
	길조			●		
	동자		●	●		
	블로초			●		
식물문양	소환화	●				
	석류문		●	●	●	
	목단문		●	●	●	
	보상화문		●			●
	인동문		●			
	천도문			●		
	도류문		●		●	
	불수문		●	●	●	
	포도문		●			
	연화문		●	●	●	●
기타	국화문			●	●	●
	매화문				●	●
	당초문		●			
	구름문	●	●	●	●	●
	바위문			●		
	수파문			●		
	화염문	●	●			
	표주박문		●			
	호리병문		●			
	여의주문		●			
흉배보문양	칠보문		●	●	●	●
	팔보문			●		
	글자문		●	●	●	
	용문	●	●		●	
	봉황문	●	●			
문양기법	십장생문	●	●		●	
	여의주문	●				
	화염문	●	●		●	
	삼산문		●			
	직금	●	●		●	
문양기법	금박		●	●	●	
	자수	●	●	●	●	
	지문		●	●	●	●
	소문		●		●	●

표의에 나타난 문양의 종류를 보면 신분상징과 길상성·의례적인 성격이 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혼례시 착용한 표의는 길상적인 의미가 담긴 문양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활옷의 경우 二姓之合, 百福之源, 壽如山, 富如海, 百年同樂, 五福俱全 등의 길상어문을 사용하여 혼례를 축복하고 기원하였으며, 원삼에는 壽, 壽, 卍자문을 당의에서는 壽福의 글자문이 나타났다. 지문이나 소문의 표의도 나타났는데, 원삼 31.9%, 당의 66.7%, 장의 13.2%가 지문이 있었다. 여기에 나타난 문양들은 도류불수문·보상화문과 목단·인동 등의 식물과의 배합, 그리고 운문과 동물문·보문의 배합 등이 많았으며, 주로 紗와 緞에서 나타났다. 문양기법에서 직금은 원삼이나 당의에 많이 나타났으며 금박은 표의의 길 전체에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일정한 부위의 문양대, 색동과 한삼부분 그리고 대대에 많이 사용하였다. 자수는 적의와 활옷에서 많이 나타났다.

5) 부속품

조선시대 여자표의는 관모, 대대, 땡기, 노리개, 혜 등이 표의와 같이 사용되었다. 관모에는 치적관·화관·족두리 등으로 화관은 대개 활옷이나 당의를 입을 때 썼던 화려한 관이며, 족두리는 장식 없이 하기도 하고 칠보·밀화·옥 등을 장식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대대는 홍색이나 청색에 문양을 달리 새겨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며, 땡기는 도투락땡기, 앞땡기, 고이땡기 등이 있다.

3. 여자표의의 외형적 특징에 나타난 복식미

1) 형태

조선시대 여자표의에서 나타난 형태의 특징은 전체윤곽선과 깃·소매모양, 구성선, 여밈, 장식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복식미는 다음과 같다. 표의에서 나타난 A라인은 동양철학에서의 천·지·인의 완전한 조화를 상징하는 人字 모양⁷⁾이다. 이러한 선은 형태나 방향에 따라 호소력이 달라 인간의 감정을 수반하고 활력적인 운동감을 느끼게 하며 선을 통하여 인간의 미적인 경험이 표현되었다.⁸⁾ 표의에서 나타나는 풍성하면서도 경돈된

조화의 미가 나타나는 것은 선의 통일감 속에 있으며, 표의를 착용함으로써 풍성한 형태적 특징을 보인다. 이 풍성한 형태감이 당대인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여유와 자연스러움을 추구한 복식미의 한 특징이기도 하였다.¹⁰⁾ 또한 표의의 풍성한 형태는 화려함이 가중되어 미적 표현만이 아니라 착용자의 신분을 나타내어 위신과 체통을 지키기 위한 인격미¹¹⁾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소매의 종류에 따라 전체 실루엣의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소매가 넓을수록 우아함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좁은 경우 단아한 선의 미가 나타났다. 한삼의 경우, 한삼의 선에서 나타나는 긴 선은 인체에 착용되었을 때 반복적으로 흔들리는 리듬감¹²⁾을 부각시키면서 장식적인 요소와 큰 폭으로 인해 의례성이 나타났다. 수구 襪과 색동은 異色으로써 장식성을 나타내었다. 색동은 남은 색 천으로 이어져서 조각보의 개념과 동일시할 수 있다¹³⁾고 하며, 원삼이나 활옷에 한삼이 붙기 전 소매 끝에 두세줄의 색동을 첨가함으로써 화려함을 더하고 있다.

여러 가지 깃모양은 착용자의 개성과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미적 요소로 특히 적의에서 보여지는 직령은 도련선까지 이어져 장중함을 주고 있다. 원삼과 당의의 도련에서 보여지는 호선은 조선 복식에 표현된 미적 특징으로, 조지훈이 '멋'의 형태미로 지적한 '호선의 곡선미'와도 일치한다.¹⁴⁾ 주름은 표의의 형태를 넓혀 주었고 직선의 美와 drape의 美¹⁵⁾를 나타내었다. 異色の 소형당무와 거들지, 보·홍배, 폐슬, 대대 등은 장식미를 나타내었다.

2) 색채

여자표의에 나타난 색채의 특징은 원색이 대부분이며, 원색과 원색의 보색조화, 이중색, 그리고 백색과 갈색 등이 나타났다. 원색은 천하지 않고 밝고 산뜻한 그리고 순수한 색채감이 느껴지는 자연스런 색상으로 자색·황색·적색·청색·녹색계 등이 나타났다. 자색의 상징적인 의미는 관복제도에서는 등위로 나타났으나, 민속에서는 일찍부터 인생의 다복을 기원하는 축원적 의미로 자손의 번영을 나타내어 혼례시 많이 사용되는 색으로 의복의에 침구류 등에도 쓰였다.¹⁶⁾ 적색류는 상위의 색

으로 가장 많이 채용되어 조선시대 상징적인 색이었으며,¹⁷⁾ 황색은 음양오행사상에 철학적 바탕을 두고 있는 가장 귀한 색으로 한민족의 색채감각에도 부응하여 여자 한복의 기본색 중의 하나로 정착할 정도로 그 세력을 확보하며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¹⁸⁾ 청색류는 쪽이라는 염료가 인류에게 가장 많이 애용된 친근하며 손쉽게 물들여지는 염료로 견뢰도도 좋아 서민의료 염색에 적합하여 보편적으로 장려되었던 복색이다.

백의는 청결, 순결, 빈한(貧寒)의 상징이며,¹⁹⁾ '있는 그대로'의 직물을 착용한 것으로, 직물의 자연색인 소색을 있는 그대로 애용한 데에서 나타난 현상이다.²⁰⁾ 이는 자연스러움이 유발되며 순수한 아름다움을 미적 특징으로 가질 뿐만 아니라 백색의는 현종때 최상의 미로 숭상하는 경향이 있었다.²¹⁾ 동정의 색채는 백색을 고수하여, 단정함과 아름다움²²⁾을 나타내었다.

여자표의에서는 원색의 조화가 많이 나타났는데 적의의 심청색과 적색 襪, 원삼·당의의 겉과 안감의 배색, 활옷의 홍색과 청색단 등은 원색끼리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있다. 순하고 밝은 원색과 원색의 조화는 자연스러우면서 화려한 멋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원삼의 안감인 홍색과 청색단은 겉감의 녹색과 화려한 원색조화를 보이며 또한 표면의 색채는 안감인 홍색이 은근히 내비치므로 이중색인 고상한 녹색으로 나타났다. 원삼과 활옷은 또한 그 트임으로 인해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안단으로 사용된 보색이 드러나는 것을 미적 특징으로 하기도 한다.²³⁾

색동에 사용된 색은 홍·황·청 등 삼원색으로 이는 본능적이고 근원적인 색의 집합이며, 여기에 첨가된 백색은 무채색으로 색채의 개입을 불허하는 여백의 표상이다. 특히 백색은 어느 색과도 잘 어울리고 밝은 인상을 주어 주변 색을 강조해 주기도 한다. 색동에는 이성지간, 또는 만물의 구성원리에 적용되는 색채개념으로서의 음양관과 오행사상의 상생(相生), 상극(相剋)의 개념이 개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보면 색동중 홍·황의 상생이 나타난 원삼은 57.1%로 나타났으며, 그 의

상생이 아닌 색동배열로 홍·청이 14.2%로 녹원삼에서 나타났으며, 황·청은 21.4%로 홍원삼에서, 청·황은 7.1%로 자적원삼에서 나타났는데 이중 상극배열은 자적원삼에서만 나타났다. 활옷에 나타난 색동의 배열을 보면 황·홍·청은 생기가 따르는 색배열²⁴⁾의 하나로 전체 표의중 37.5%로 나타났으며, 청·황·홍의 청·황은 상극배열로 역시 37.5%를 나타내었고, 황·청·홍의 청·홍과 홍·황·청의 홍·황은 상생배열로 표의에서는 12.5%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색동의 배열에 있어 상생을 주로 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상생·상극의 개념보다는 삼원색의 조화로운 사용을 통해 화려함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색동에는 길상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원삼이나 활옷은 회구의 표출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복식으로 혼례의 기쁨이나 앞날의 행복에 대한 기원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색동은 활옷의 괴석문에까지 시문되어 선명하고 강렬한 원색의 배치는 색동의 질서를 갖추지는 않았지만, 색동이 갖는 원색조화의 극치를 보여준다.²⁵⁾

3) 소재

여자표의에 나타난 소재는 緞·紗·紬·絹의 견직물과 모시와 무명 등으로 견직물이 많이 나타난 것은 얇고 투명한 직물에서 미적 감정을 느꼈던 당대인들이 촉각적인 부드러움에 아름다움과 귀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緞은 두껍고 광택이 나는 화려한 직물이며, 紬는 표면이 영롱하고 투명한 느낌을 주며, 紗와 絹는 얇은 직물로 촉각적인 부드러움과 섬세한 아름다움을 나타내었다. 모시는 조선복식의 정갈스러운 아름다움이 나타나며, 무명은 소박함을 나타내었다.

4) 문양

여자표의에 나타난 문양은 자수와 지문, 적금, 금박 등의 형태로 여러 가지 종류의 문양이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하였고, 소문의 형식도 나타났다. 즉 동물문·식물문·자연문·길상어문 등이 많이 나타나 길상적인 우의성으로 현세의 복락을 기원한데서 애용되었다. 왕비의 대례복인 적의는 풍성

한 형태 위에 화려한 적문을 의복전면에 연속적으로 시문함으로써 존귀함과 위엄을 나타내며 또한 의례복으로서의 화려함을 나타내었다. 활옷도 원색의 직물에 다양한 색을 사용하여 화려하고 강렬함을 나타내었다. 활옷에 나타난 문양들은 길상적인 의미를 가지며 특히 길복의 염원을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자수는 조선시대에는 금직단 이상으로 귀하게 여겼으며 자수의 표현방법은 인간적²⁶⁾이며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 전체 표면에 壽福의 문자문이 사방연속으로 금박되어 있는 원삼²⁷⁾은 일률적이며 규칙적인 문양이 복식의 전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은 부드럽고 단아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이러한 형식감정의 문양표현은 적의에서 보이는 표현보다 단순하면서도 정갈한 미적 표현으로 한국인의 미적 취향에 적합했다고 본다.²⁸⁾ 또한 장식 문양대를 지정하여 문양을 시문함으로써 질서감과 통일감을 부여하기도 하여 한층 정제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금박은 원삼·당의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넓은 면적에 시문됨으로써 위 의와 존귀함을 나타내었다. 지문이 시문된 유물은 은근하며 온아한 미적 표현을 가지므로, 시각적으로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고급스러운 아름다움을 나타내었다. 유물에서 나타난 素紋은 인위적인 장식성이 배제된 '무장식의 장식'²⁹⁾으로 조선복식이 보여주는 또 다른 미적 표현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며 차분한 아름다움을 나타내었다.

5) 부속품

화관이나 족두리는 화려한 색채조화와 술장식, 떨새와 같은 다양한 형태와 문양이 미적 특징으로, 이중 오색구슬로 장식된 화관에서 나비 모양의 떨새는 화관을 더욱 생동감있게 하는 것으로 용수철 위에 올린 나비와 꽃 형태의 떨새들은 착용자가 움직일 때마다 잔잔하게 떨리게 된다. 도투락땡기나 앞댕기, 고이댕기 등도 복식의 미적 표현을 강화하기 위한 수식의 하나로 밀로 늘어지는 흐름을 미적 특징으로 가지며, 착용자가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는 울동미의 특징을 갖는다.³⁰⁾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여자표의의 외형적 특징에 나타난 복식미를 정리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조선시대 여자표의의 외형적 특징에 나타난 복식미

	외형적 특징	복식미
형태	직선·사선·곡선의 통일감	풍성하면서 정돈된 조화미
	풍성한 형태	여유와 자연스러움·인격미·화려함
	주름	직선의 미·drape의 미
	소매모양	의례미·단아한 선의 미
	한삼	리듬감·의례미
	깃	전통미
	호선의 도련선	곡선미
	선장식·거들지·매듭·고름·홍배·보·하피·패슬·단추·대대·색동	장식미·실용성·상징성
색채	백색	소박함·화려함·승고함
	순하고 밝으며 산뜻한 원색	자연미·화려함
	색동	길상미(백사미)·화려함
	이중색	독특한 색채미
	원색조화	즐거움·화려함·순수미
소재	주	영롱하고 투명한 느낌
	단	두껍고 광택이 나는 화려함
	사	촉각적인 부드러움과 섬세한 아름다움
	초	섬세함
	모시	정갈스런 아름다움
	무명	소박함
문양	소문	담백하며 정갈한 미
	지문	은근하며 온아한 자연스러운 미
	금박	위의와 존귀함
	자수	인간미·다양성
	문양의 종류	상징성·주술성
부속품	관모·대대	완결미·의례미·상징성
	댕기	올동미

III. 여자표의를 활용한 혼례복

이상과 같은 조선시대 여자표의를 활용한 혼례복에 대해 고찰해 본 결과 활용방법은 표의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모방하거나, 외형적 특징을 부분적으로 모방하는 방법 등으로 나타났다.

표의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모방한 혼례복에는 전통혼례시 착용하였던 원삼의 활용이 가장 많았

다. 이는 전통혼례복의 형태를 유지하려고 한 것으로, 색채와 문양 그리고 뒷자락의 길이에 변화를 주어 활용하였다. 그 외 적의와 당의 그리고 활옷 순으로 활용도가 나타났다. 이러한 조선시대 여자표의의 외형적 특징에 대한 활용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형태

원삼의 형태를 활용한 표본수는 전체 83점중 52점으로 62.7%이었으며, 당의는 14점으로 16.9%, 적의는 11점으로 13.2%, 활옷은 6점으로 7.2%로 나타났다. 형태에 대한 활용도는 <표 6>과 같다.

형태의 활용도를 보면 원삼의 활용이 가장 많았고, 깃은 합임이, 소매는 두리소매를 많이 활용하였다. 색동을 활용한 표본수는 16점으로 전체 19.3%가 활용하였는데, 2~3줄의 색동이 균형있는 너비로 나타났다. 전단후장의 경우는 <그림 1>과 같이 뒷자락을 train처럼 길게 하여 활용하였다. 여밈은 대대를 많이 활용하였고, 보나 홍배의 장식대신 <그림 2>와 같이 보석을 많이 활용하여 화려함을 가미한 경우도 나타났다.

<표 6> 혼례복에 나타난 형태(n=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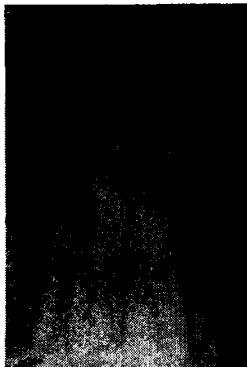
형태	표의	원삼	당의	적의	활옷	합계*
깃모양	직령	5		7		12
	목판깃	3	2			5
	둥근깃	1	1	1		3
	반달깃	1	10			11
	합임	35	1		4	40
	깃없음	7		3	2	12
소매모양	두리소매	49	2	8	6	59
	착수	1	7			8
	광수			4		4
	반수		2			2
	활수	2	1			3
	색동	12	1		3	16
구성선	수구선		1	3		4
	옆트임	51	14		6	71
	전단후장	19	1		1	21
여밈	고름	3	7			10
	단추	2				2
	대대	28		3	3	34
	매듭	5	3		1	9
	없음	19	4	9		32

형태	표의	원삼	당의	적의	활옷	합계 *
장식	흉배	1	1		1	3
	보	3	9	1		13
	보석부착	8		3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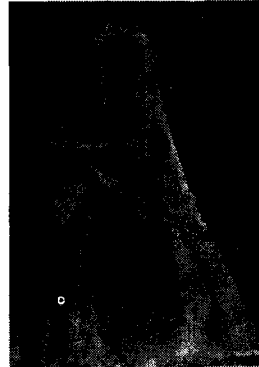
*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와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 총 표본 수와 일치하지 않음.

2)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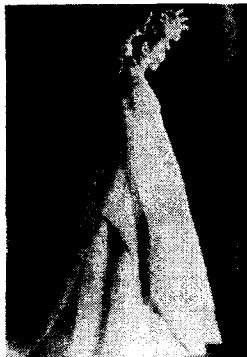
색채에 대한 활용도는 <표 7>과 같다. 전체 62 점(74.7%)이 백색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서양의 웨딩드레스의 영향을 많이 반영한 듯 하다. 그 외 사용된 색상들의 전체 분위기를 보면 대부분 원색보다 채도가 낮은 부드러운 색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색이 주는 강한 색채보다는 순결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그림 3>과 같이 백색을 많이 사용하였고 부드러운 색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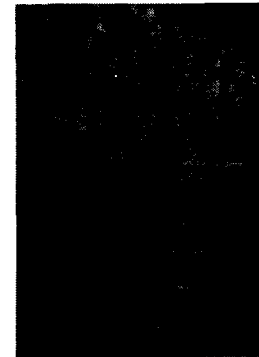
<그림 1> 아름다운 우리옷
1993년 12월호, p.108



<그림 2> 한국의 미
1992년 여름호.제4호, p.29



<그림 3> 웨딩 tomato
2000년호, p.94



<그림 4> 민속의상
여름. 1991년, p.33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에서처럼 백색에 색동이 활용된 경우에도 원색보다는 연하늘·연노랑·연분홍의 파스텔톤을 사용하였다. 이외에 활용된 색동의 색은 대부분 옥색·분홍·노랑·하늘색·연두 등의 파스텔 계열색이며, 청색과 진분홍, 감색 등의 색채도 나타났다.

<표 7> 혼례복에 나타난 색채(n=83)

색채	표의	원삼	당의	적의	활옷	합계
백색	40	10	8	3	61	
분홍(연분홍)	8			3	11	
황색	1				1	
녹색	1				1	
연노랑	1				1	
홍·황·녹혼합색	1				1	
황갈색			1		1	
적색			2		2	
크림색			2		2	
연두색			1		1	
파스텔혼합색			1		1	
합계	52	14	11	6	83	

3) 소재

표의를 활용한 혼례복의 소재는 80점이 견직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소재로는 모시가 있었는데 이는 전체의 3점에 불과하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1차자료가 아닌 관계로 인쇄상 구별이 되는 견직물 종류에는 노방과 주사 그리고 단 등이 나타났으며, 특히 노방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방이 주는 은은하며 see-through 느낌 때문에 많이 활용한 것 같다.

<표 8> 혼례복에 나타난 소재(n=83)

소재	표의	원삼	당의	적의	활옷	합계
견	51	12	12	6	80	
모시	1	2			3	

4) 문양

표의를 활용한 혼례복에 나타난 문양의 결과는 문양이 나타나지 않은 8점을 제외한 75점을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에서 보면 화문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전통적인 문양의 사용보다는 <그림 5>와 같은 화문이 화려한 감각

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많이 활용한 것 같다. 그 다음으로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기하학문을 많이 사용하였다. 길상어문중에는 壽福문만 나타났으며 십장생문은 전체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일부의 장생만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보·흙배에 나타난 문양은 화문이 12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십장생변형이 2점, 길조가 2점 나타났다.

<표 9> 혼례복에 나타난 문양(n=75)

문양		표의	원삼	당의	적의	활옷	합계*
동물문	봉황		4			1	5
	길조			1	1	1	3
	경용			1			1
	학	2	1				3
	나비				1		1
	화문	26	8	5	1		40
식물문양	목단	1	1			2	4
	연잎			1			1
	연화문	2				1	3
	불로초	3					3
	난	1					1
	괴석	2	1			1	4
	당초	2	1	2			5
	석류	1					1
	불수	1					1
	자연문	운문	3	1			4
수파문	5	1			2	8	
화염문				1		1	
기타	수복문	1					1
	십장생문	2				4	6
	기하학문	10			1		11
	와당	1	1	1			3
	소문	6	1	2			9
보문양	화문	3	8			1	12
	십장생문	1	1				2
	길조			1		1	2

* 중복인 경우가 있어 전체 표본수와는 오차가 있음.

이러한 문양들은 자수기법을 통한 활용이 가장 많았고, 그 외 그림과 지문, 그리고 직접염색법을 통하여 문양을 사용하였다. 그림기법은 <그림 6>과 같이 묵화로 생명이 깃든 바위에 난초의 향기가 깃든다는 석수난향을 그려 넣은 혼례복도 있었다. 또한 <그림 7>과 같이 삼각형의 기하학문을 조각 보기법으로 천을 이어 나타내기도 하였으며 보석을 문양따라 부착하여 나타내기도 하였다. 문양기

법에 대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혼례복에 나타난 문양기법(n=75)

문양기법	표의	원삼	당의	적의	활옷	합계*
실크스크린		11	2	1	2	16
아플리케		2		1		3
금박		6	1	2	1	10
자수	18	8	2	4		19
그림	10	1	2			17
지문		3	1	1		5
소문		6		2		8
조각보기법		2				2

* 이증기법인 경우가 있어 조사된 표본수와 전체 표본수는 오차가 있음.

5) 부속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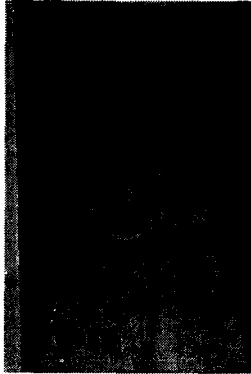
혼례복에 활용된 머리장식을 보면 <그림 6>과 같이 아얌을 변형한 쓰개가 20점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외 화관을 변형한 머리장식과 족두리 변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머리쓰개를 하지 않은 경우도 11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기타에 나타난 머리장식에는 신라식 관과 복두를 변형한 관, 코로넷형태의 관, 크라운 형태의 관 등이 나타났으며, 별도양의 현대적 디자인의 머리장식도 나타났다. 그 외 부속품을 보면 노리개의 사용이 가장 많았고, 땡기와 비녀는 머리장식이 있는 경우 함께 착용되어 나타났다.

<표 11> 혼례복에 나타난 머리장식(n=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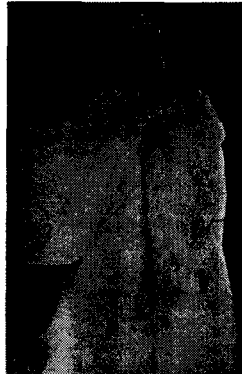
머리장식	표의	원삼	당의	적의	활옷	합계
아얌변형	11		5	3		19
화관변형	7			1	3	11
족두리변형	2				2	4
어여머리변형	9			3	1	13
생화장식	7		5			12
장식없음	6		4	1		11
기타	10			3		13
합계	52		14	11	6	83

<표 12> 여자표의 조사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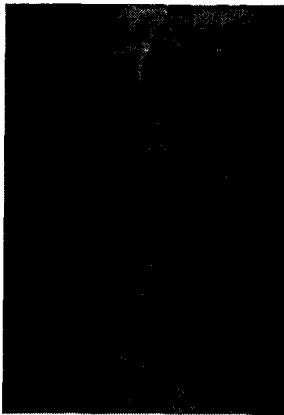
구분 표의	착용자	추정연도	표본수	소장	출처
적의	순정효황후	1894~1966	1	세종대학교박물관	유송옥, 조선왕조궁중의례복식, p.226
	영친왕비	1897	1	동경국립박물관	김영숙, 조선조말기왕실복식, p.40
원삼	이단하부인	숙종	1	이종후	고복남논문, p.246
	화순옹주	영조	1	고려대학교박물관	고복남논문, p.248
	미상	?	1	세종대학교박물관	고복남논문, p.250
	미상	?	2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고복남논문, p.250
	미상	1850년대	1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석주선 衣, p.86
	덕은공주	1822~1844	1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유송옥, 한국복식사, p.255
	윤황후황원삼	1907년	1	세종대학교박물관	허명희논문, p.17
	윤황후홍원삼	1897~1907	1	세종대학교박물관	유송옥, 한국복식사, pp.172-173
	동궁비홍원삼	조선말	1	세종대학교박물관	유송옥, 조선왕조궁중의례복식, p.297
	광화당자적원삼	조선말	1	세종대학교박물관	유송옥, 조선왕조궁중의례복식, p.298
	조대비하사품녹원삼	조선말	1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우리옷이천년, p.101
	김병국일가	1900년대	4	온양민속박물관	안동김씨분묘발굴조사보고서, p.203
	전왕비녹원삼		1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유송옥, 조선왕조궁중의례복식, p.294
청연군주	1754~1821	1	세종대학교박물관	유송옥, 조선왕조궁중의례복식, p.296	
영친왕비홍원삼	1897	2	동경박물관	김영숙, 조선조말기왕실복식, pp.40-49	
활옷	미상	조선초	1	창덕궁박물관	고복남논문, p.255
	미상	조선후기	1	고려대학교박물관	고복남논문, pp.255
	미상	조선후기	1	허동화	고복남논문, p.258
	미상	1680년대	1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석주선 衣, p.90
	복은공주	순조	1	김귀년	유송옥, 한국복식사, p.257
	미상		1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유송옥, 한국복식사, p.273
	미상		1	창덕궁	유송옥, 조선왕조궁중의례복식, p.359
	미상		1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급기숙, 조선복식미술, p.102
당의	덕은공주	1837~1860	5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석주선 衣, pp.94-98, 유송옥, 한국복식사, p.259
	덕혜옹주	고종	1	궁중유물전시관	김영숙, 한국복식문화사전, p.123
	청연군주	1754~1821	1	세종대학교박물관	석주선 衣, p.142
	미상	조선중기	3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복식 2천년, p.80, p.83
	윤황후	1907년	1	세종대학교박물관	유송옥, 한국복식사, p.175
	미상	?	1	?	유송옥, 한국복식사, p.274
	영친왕비	190말	4	동경박물관	김영숙, 조선조말기왕실복식, pp.75-82
	노공비	조선말	1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우리옷2천년, p.97
	안동김씨일가	1900년대	5	온양민속박물관	안동김씨분묘발굴조사보고서, p.209 한국복식 2천년, p.82
장의	동래정씨	1583년	1	전주이씨문중	고복남논문, p.358
	청주한씨	1550년대	1	충북대학교박물관	고복남논문, p.360
	서민	17C추정	1	충북대학교박물관	고복남논문, p.360
	미상	16C중엽	1	국립박물관	고복남논문, p.364
	김덕원공부인	1700년대	8	김재호	고복남논문, p.365
	구례손씨	1600년대	1	충북대학교박물관	조선시대복식연구, 학연문화사, p.29
	진주하씨	1600년대	4	충북대학교박물관	조선시대복식연구, 학연문화사, p.29
	장흥임씨	1600년대	1	충북대학교박물관	조선시대복식연구, 학연문화사, p.29
	양천허씨	1550년대	2	석주선민속기념박물관	박성실논문, p.372
	남양홍씨	1584~1654	1	석주선민속기념박물관	박인숙논문, p.51
	문화유씨	1617~1685	1	석주선민속기념박물관	박인숙논문, p.52
	김침의 딸	1579~1648	2	충북대학교박물관	박인숙논문, p.49
	파평윤씨	1558~1589	3	충북대학교박물관	이주영논문, p.7
	경주이씨	?~1684	3	충북대학교박물관	이주영논문, p.7
	문영부인	1637~1658	2	울산시이휴정	고복남논문, pp.361-362
여흥박씨	1605~1672	1	울산시이휴정	이주영논문, p.35	



<그림 5> 아름다운 우리옷
1990년 2월호, p.37



<그림 6> 아름다운 우리옷
1993년 8월호, p.113



<그림 7> 아름다운 우리옷
1995년 3월호, p.59

IV. 결론 및 제언

이상과 같이 혼례복 디자인개발을 위하여 조선시대 여자표의와 혼례복에 활용된 실례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조선시대 여자표의의 외형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형태는 직선·곡선·사선 등의 선의 흐름과 깃·소매모양에 있어 다양함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색동과 한삼, 전단후장의 길 구성법, 주름과 트임, 도련의 호선, 다양한 여밈 방법과 장식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색채는 원색과 원색의 조화, 걸감과 안감의 보색조화, 이중색 등으로 나타났으며,

소재는 견직물이 대부분이었다. 문양은 다양한 표현기법으로 표현된 여러 종류의 문양들이 나타났으며 특히 길상어문은 여자표의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부속품으로는 관모와 땀기·혜가 있다.

둘째, 조선시대 여자표의의 외형적 특징에 나타난 복식미는 자연미를 토대로 전체 실루엣이 조화되면서 유동의 미와 장식미가 나타났으며, 신분상징성과 화려함과 의례미, 그리고 은근하며 담백한 미와 길상적인 우의성이 나타났다.

셋째, 혼례복에 활용된 실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형태적인 특징은 풍성한 실루엣을 지닌 원삼이나 활옷·적의 등을 활용하여 나타내거나 당의의 X자형을 이루는 옆선과 도련의 곡선을 활용한 형태가 나타났다. 뒷자락을 train처럼 길게 하여 활용하거나 면사포를 활용하여 길게 늘어뜨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혼례복에는 보석을 많이 활용하였는데 이는 현대적인 감각을 갖추는데 좋은 요소로 생각되며 한국적 미를 표현한 혼례복에 보석장식을 하는 것도 디자인의 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색동에서 나타난 조각보기법을 혼례복 디자인에 활용하는 것도 한국적 미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되어지며 다양한 조각보기법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혼례복에 사용된 색채를 보면 백색과 은은하면서 부드럽고 화사한 색상들이 주로 나타났다. 이는 혼례복의 이미지가 순결하고 깨끗함이 강하여 활용한 것 같다. 한국적인 혼례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백색이 지닌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전통표의의 색채를 사용하여 혼례복을 개발하는 것도 차별있는 혼례복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색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현대인의 감각에 맞는 색채로 느낌을 변화시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천연염색으로 색을 추출하는 것도 보다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전통표의나 혼례복에 나타난 소재는 견직물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촉각적인 느낌과 외형상 유연한 선의 미를 나타내는 소재의 특성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견직물은 혼례복에 활용되었을 때 한국적인 느낌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느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소재이다. 다만 편중된 견직물의 사용으로 표현성이 한정되기 쉬우므로 같은 소재라도 다양한 느낌을 가진 신소재 개발의 활용도 요구된다. 현재 금직에 대한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많은 활용이 기대된다. 그 밖의 모시가 갖고 있는 섬세하고 투명함에서 느껴지는 정갈스러운 아름다움은 혼례복의 이미지에 적합하므로 이를 활용한다면 한국적인 미가 더욱 느껴질 것이다.

문양은 화문이 주로 나타났는데 혼례복이라는 의례를 표현할 수 있는 문양으로 용과 봉황문을 활용하여 귀함을 나타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심장생문을 현대적인 색채감각으로 문양을 표현한다면 한국적 미를 더욱 가미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부속품에는 아암을 변형한 머리쓰개와 땀가죽과 노리개 등이 사용되었는데 이들의 디자인은 전통 모양과 많이 다르지 않으며 색에서 변화를 주었다. 따라서 관모의 모양을 현대감각의 관식형태로 변형시키거나 금속성 소재로 사용하면 더욱 좋은 의례적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현대미도 적극 첨가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외형적 특징에 의례미와 자연미를 토대로 현대적인 감각이 깃든 우아함과 화려함을 혼례복에 접목시키면 한국적인 복식미를 표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혼례복은 앞으로 전통복식뿐만 아니라 한국패션 산업에 중요한 요소로 발전할 수 있는 복식이다. 혼례복을 창조하는데 있어 조선시대 여자표의의 복식미를 토대로 외형적 특징을 다각도로 접근해 혼례복이 개발된다면 국제화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전통복식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1) 여상미·박옥련, 조선시대 남자표의를 활용한 혼례복 디자인개발 연구, 복식 제52권 4호, 한국복식학회, 2002, 7, pp.39-50.
- 2) 고복남, 한국전통복식사연구, 서울:일조각, 1986, p.188.
- 3) 문명희, 첩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 논문, 1980, p.25.
- 4) 여상미·박옥련, 앞글, pp.41-43.
- 5) 위글, pp.41-43.
- 6) 금기숙, 조선복식미술, 열화당, 1995, p.25.
- 7) 최성자, 한국의 미 선/색/형, 서울:지식산업사, 1995, p.13.
- 8) 김영자, 한국의 복식미, 민음사, 1992, p.68.
- 9) 위글, p.74.
- 10) 금기숙, 앞글, pp.25-33.
- 11) 위글, p.160.
- 12) 위글, p.46.
- 13) 성승연·배천범, 색동의 현대적 표현을 위한 연구, 복식47호, 한국복식학회, 1999년 9월, p.162.
- 14) 조지훈, (한국인과 문학사상, 일조각, 1964), 금기숙, 앞의 책, p.50에서 재인용.
- 15) 최경진, 한복의 주름에 관한 연구, 복식 16호, 한국복식학회, 1991.5, p.98.
- 16) 김영숙, 한국복식사에 나타난 전통색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p.147.
- 17) 위글, p.171.
- 18) 위글, p.166.
- 19) 최현배, 조선민족 개생의 도, 정음사, 1986, p.81.
- 20) 김원룡, 한국고미술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p.236.
- 21) 김영숙, 앞글, p.58.
- 22) 금기숙, 앞글, p.34.
- 23) 위글, p.96.
- 24) 성승연·배천범, 앞글, p.167.
- 25) 금기숙, 앞글, p.83.
- 26) 위글, p.103.
- 27) 전왕비녹원삼, 이화여대박물관소장.
- 28) 금기숙, 앞글, pp.95-96.
- 29) 고유섭, 한국미술사급미술논공, 통문관, 1963, p.4.
- 30) 금기숙, 앞글, p.137.